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과거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불만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생각은 이미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과거의 나, 불만 속의 나, 생각 속의 나와 그만 이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의 가장 좋은 나와 만나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와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봉선사 대중 280여 명은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스님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구장 초격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내 집 뜨락 안에 있는 봄꽃과 같이 많은 스님들이 찾고, 향기로운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범선 병원장은 “종립병원으로서 스님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봉선사 스님들의 의료적 상담, 검사,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 부주지 도일스님, 국장스님단이 함께 했다.



2022년도 수련환경평가 현지수검

지난 7월 18일~19일 이틀간 2022년도 수련환경평가 현지수검이 진행되었다.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박현수 진료부원장, 김도연 교육수련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평가위원들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적 지정기준 및 교육환경,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전공의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졌다.

평가단장 김원섭 교수(충북의대 학장)은 총평에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의 모습을 치하하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 제언하였고, 권범선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언을 잘 받아들여 수련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전문기관 지정 3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7월 1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2019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동 내 프로그램과 불교적 영적 돌봄을 활성화하여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이 말기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4일 상반기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실시했다.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등 경영진 그룹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환자안전 문화구축을 위한 활동이다.

본 행사는 반기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리더십 워크라운드에는 62병동, 101병동, 내과계중환자실, 응급실, 소화기병센터검사실, 영상의학과를 방문하여 환자안전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권범선 병원장은 “지속적으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시행하여 환자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